

## 결핵환자 관리 사례발표

# 강북구보건소 결핵실 이야기



노 숙 희

강북구보건소 결핵관리간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 보건소 결핵실에 근무하고 있는 노숙희입니다. 저희 결핵실에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양성 95명, 음성 52명, 재치료 8명으로 총 155명입니다.

저는 결핵실에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대하는 저희 마음과 환자들이 관리요원을 대하는 시각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관리요원들이

환자들을 가족처럼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려는 작업이 행하여 질 때,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치료에 스스로 참여하려는 노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환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환자관리를 구분해 보았습니다.

결핵관리는 크게 환자관리와 환자가족관리로 나누어집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자관리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 환자관리는
1. 신환자 관리 : 107명
  2. 중단환자 관리 : 7명
  3. 재발환자 관리 : 33명
  4. 재치료환자 관리 (8명)으로 나누어집니다.

### 1. 신환자 관리

신환자 관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환자와의 첫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관리요원과 환자가 신뢰감을 잘 형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환자가 관리요원에게서 받는 첫 느낌과

첫 정보는 지속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제공과 성실하고도 자세한 설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2. 중단환자 관리

중단환자 관리에서 중점적인 요소는 2~3개월간의 중단시 환자와의 만남이 우선이며, 환자와 만나서 중단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중단의 원인으로는 시간이 부족했을 경우, 약 복용시 부작용이 있는 경우,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 요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환자의 계속적인 복약이지만 환자들이 생각할때는 결핵약 복용보다 그들 개인의 경험이나, 사건들이 보다 더 중요한 중단의 원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약 복용시 가족의 죽음이나 조기퇴직으로 인해 받은 고민과 고통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입니다.

## 3. 재발환자 관리

재발환자 관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환자가 문제를 안고 내소하기 때문에 환자가 완치후 어떤 건강관리를 하였으며, 그들의 생활태도나 환경, 합병증 등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재발의 원인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 재치료환자 관리

재치료환자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투약기간의 장기화와 장기투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투약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환자관리에서 공통적으로 갖는 핵심적인 내용은 환자 자신에게 치료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촉진시켜 주는 한 방법으로 저희 강북구 보건소 결핵실에서는 결핵환자 모임을 가져 보았습니다.

처음에 모임의 이름을 “결핵환자 모임”으로 정하였으나 환자들이 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을 “만남의 시간/만남의 자리”로 바꾸었더니 환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결핵환자들은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결핵환자라는 사실을 매우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교실이나 관절염 교실을 찾는 환자들은 떳떳하게 찾아가서 교육을 받고 스스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결핵교실하면 매우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핵을 사랑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치료를 해야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핵환자 모임의 목적을 세가지로 정하였습니다.

1.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 동안 즐겁게 복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약 복용의 중단율을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3. 결핵을 잘 관리하여 재발율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 보건소 결핵실에서는 지금까지 두 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1회 모임은 96년 12월 10일에 가졌으며, 제2회 모임은 97년 10월 13일 14:00에 가졌습니다. 본 모임에 참여한 환자들의 구성을 보면,

1회 모임은 신환자 6명, 재발환자 5명, 재치료환자 1명으로 모두 12명이었습니다.

2회 모임은 신환자 1명, 재발환자 4명, 재치료환자 2명으로 모두 7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관리요원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모임을 이와 같이 구성한 이유는 신환자나 재치료환자나 재발환자들을 통해 치료의 필요성을 환자들 스스로 느끼고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환자는 재치료 환자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재치료나 재발환자는 서로 격려하고 자신들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1회 모임에서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2회 모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모임에 참여한 환자들의 연령분포와 성별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분포 : 1회 모임시에서는 30대(6명), 40대(5명)이었으며, 2회 모임

에서는 20대(1명), 40대(3명), 50대(3명)이었습니다.

(2) 성별 분포 : 1회 모임시에 남자 7명, 여자 5명이었으며, 2회 모임시에는 남자 4명, 여자 3명이었습니다.

모임의 조성 방법과 준비물품 및 모임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임의 조성방법 : 개별전화나 내소시에 '복약중 합병증 관리나 궁금한 내용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다과회'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 준비물품 : 장소(결핵실내 소 교육실)와 「결핵상담실」소재자, 다과 및 음료를 준비하였습니다.

(3) 모임의 진행 : 사회는 제가 보았으며 이런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1) 모임의 취지와 함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2) 자기 소개에 있어서는 환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3) 사회자가 카드를 보면서 특별히 주의할 점이나 부연설명을 하였습니다.

4) 환자들이 갖고 있는 합병증이나 문제들을 의사나 간호사가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은 환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5) 환자와의 대화는 환자들끼리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6) 마지막으로 결핵약 복용이 끝났을 때는 환자 자신이 치료자라는 것과 더 나아가 가족의 결핵까지도 관리해 주는 관리자라고 주지시키며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임에 대한 평가를 목적에 비추어 발표하겠습니다.

97년 10월 13일에 가졌던 2회 모임의 평가는 결핵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직 평가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96년 12월 10일에 가졌던 1회 모임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목적은 환자가 약을 복용하는 동안 즐겁게 복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모임에 참석한 구성원들은 즐겁게 약을 복용하였으며 내소하였을 때는 자신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털어 놓았습니다.

두번째 목적은 중단율을 줄이는 것인데, 1회 모임때 참석한 12명 모두가 중단이 없었습니다.

세번째 목적은 결핵을 잘 관리하여 재발을 줄이는 것인데, 재발평가는 어렵지만 모임에 참석한 구성원들이 보건소에 불 일이 없어도 내소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상담하였습니다. 이것은 환자 자신들이 스스로 관리를 할 때 재발율이 줄어 든다고 보아 좋게 평가되었지만 추후에 계속해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회 모임시 환자들의 반응은 매우 호뭇해 하였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계속해서 갖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환자들의 이같은 좋은 반응에 대해 저희 결핵실 관리요원들도 보람과 긍지를 느꼈습니다.

9월말 현재 저희 강북구보건소 결핵관리 환자는 155명입니다. 이 환자들이 퇴

목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이 모임에 참석하려면 참석인원을 10명으로 했을 때, 15회나 16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주에 1회 모임을 갖는다면 환자가 1회나 2회 정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요원의 준비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룹을 편성하는데 1시간 소요
- 우편엽서를 보내고 전화로 확인하는데 4시간 소요
- 회의 및 다과준비 1시간 소요

이렇게 해서 총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입니다. 이 6시간은 하루에 한시간씩만 모임준비를 위해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모임에 현재 지출된 비용은 결핵실에 근무하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총당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모임이 계속된다면 할 때 소요될 예산이 필요합니다.

- 우편엽서 : 200장 인쇄
- 소책자 및 복사비 :
- 다과 및 음료 : 1회 3만원 \*10회 30만원

결핵환자 모임은 관리요원들의 노력과 경제적인 지원, 시간적인 배려, 운영상의 배려가 있어야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임의 필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효과적인 방법론, 철저한 평가단계를 통해 결핵환자 관리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결핵환자를 위한 이 모임이 계속될 때, 환자를 위한 환자 중심의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